

충남 아산 주온빛

09.08.19.수 새벽 04:23

-< 에스겔서를 보라. 에스겔서를 보라는 엄한 음성이 자꾸 들려 보았더니 21장이 펴졌는데 내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 잘못 받은 것이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음.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임. >-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구절을 읽고는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웠음. 진정으로 회개치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의인이고 악인이고 죄가 너무나 관영하여 가리지 않고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픈 그 심정, 그 괴로운 심정이 이루말 할 수 없이 힘들었음.

< 하나님의 칼의 심판의 말씀 >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를 사랑하여 이 지구땅에 거하게 한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내 발아래 엎드리지 아니한 자 그 누구냐. 내가 불같은 화염검으로 너희에게 모든 심판을 이제 곧 감행하리라. 너희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나의 진노의 칼을 피해야 한다. 나의 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지구땅을 뒤흔들어 엎고 나는 불같은 검으로 너희를 내려치고 말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깨어 있으라. 진정으로 깨어나라. 나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찾는 자 또한 찾는 것에만 만족하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방심은 금물이다. 나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느니라. 한 번 지구땅에 내리꽂으면 살아날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제발 두려워하여라. 나는 사랑의 여호와인 것을 이제는 내가 잊을까 하노라. 나는 너희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는 사랑의 여호와니라. 아무리 구원의 사랑으로 인도하려 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코자 하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 자 이제 곧 내 앞에 나아오리라. 그 칼 아래 있어야 한다. 세상은 분노의 포도주를 인간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서로에게 분노를 뿜어내게 만드는 구나. 사탄의 하는 짓이 늘 그러하거늘 너희는 왜 그리도 속고 또 속느냐. 의인이고 악인이고 구별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릴 거라는 나의 말에 너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나의 마음에 쌓인 화를 너희는 잠재워야 한다.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그 모습을 면치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할 이 마지막 역사의 기대 하는 것이 맞느냐. 나는 그러하길 원하니 내가 마음 돌리지 않게 해라. 어찌 사랑하는 자까지 심판하게 만드느냐. 너희가 나의 마음알고 심정 알아서 나의 심판이 분노의 칼이 너희에게 지나가지 않도록 너희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 지금도 뭐가 뭔지 몰라 뿔뿔뿔뿔 하느 쳐다보며 눈물만 보이는 자들, 그렇게 모른 채로 너의 삶이 묻혀 버리겠구나. 무섭다 하지 말아라. 두렵다 하지 말아라. 사랑과 화평과 자비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를 분노의 하나님으로 만든 장본인은 너희니라. 너희 때문에 나의 화가 쉬 잠재워 지지 않으니 너희는 더욱 나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애를 써라. 애를 써라. 이 아이의 입술에서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나의 답답함과 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심정의 한숨이로다. 이 두려운 날을 너희는 맛을 봐야 알겠느냐. 피하라. 피해. 너희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의 심판에 거하지 않기를 나는 바라고 원하노라. 너희는 내가 각별히 사랑하고 신경 쓰는 자들이다. 근본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이 섭리사의 모든 자들이 먼저는 회개해야겠다. 각별히 사랑하면 그만큼 기대도 큰 법이거늘 그 기대에 부흥해 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너의 선생 계순이의 영광의 합작품. 이 섭리사를 내 앞에

영광으로 돌렸으니 너희라도 나 보기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나. 나의 마음에 합당함으로 거하라. 의인과 악인을 구별치 아니하고 심판 할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너희는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처럼 살다가 이 지구는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너희를 외면해야 하는 날이 오면 어찌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나 여호와를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까지 역사해 온 것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성경 좀 읽어라. 너희들의 신앙이 차든지 덤든지 해야 하거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구나. 그리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내가 뺄어 버리고 말 것이야. 심판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이 지구땅 가운데 최악이 지구 밖으로 흘러넘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지구땅이 이리 될 줄은 몰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도 외쳐주고 전해 주었으나 심정으로 듣지 못하고 한 귀로 흘리는 신앙이었구나. 지금 온 세계는 지진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산불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아파하고 있는데 인간만 모른다. 무지한 인간만 모른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의 나라에 거할 자가 누구이나. 진정으로 진실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지구땅의 최악은 모든 물과 불로 덮여 버릴 것이다. 모두 덮여 버릴 것이다. 자신은 죄인이라며 하늘조차 쳐다보지 못했던 세리를 기억하느냐. 너희는 그리 겸손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한다. 내 발아래 엎드려 내 말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순종해야 한다. 나에겐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심판이 아니다. 이 지구땅의 심판이다. 지구땅에 거하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족속은 모두 내 발아래 엎드려라. 나의 분노의 심판의 칼이 이 지구땅을 곧 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으로 내 발아래 엎드려라. 이조차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 영원한 지옥을 면하지 못하겠구나. 내 사랑 섭리사. 방심하지 말아라. 깨어 있는 자도 얼마 없으며 온전히 회개된 자도 정결하게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자가 없으니 나도 어찌 할 수 없게 되는구나. 진정으로 깨어 일어나 회복하여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길 원하는 여호와니라. 아무리 애기하고 애기해도 깨닫지 못하니 이제는 나의 마음에도 서서히 냉랭함이 들어오는구나. 내 마음에 긍휼함이 자비함이 서서히 사라지는구나. 이제는 분노의 칼이 나의 손에 서서히 들리우는구나. 두려워하라. 내게 구하라. 구하지 않는 자 결단코 이 심판 피할 수 없느니라. 내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진다. 나에게 어서 속히 나아오라. 이 지구땅이 나에게 모두 그러해야 하거늘 내 앞에 진정으로 나아오는 자가 너무나 적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아픈 심정 알아주고 나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며 살려달려 너희의 목숨을 애걸해야 하거늘 나만 애가 타는구나. 어서 나아오라. 악인과 의인의 구별은 이제 필요 없게 된다.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 할 자가 없으면 모두 악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나의 진정을 알아라. 나는 심판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09.08.19 수 새벽예배 후 기도 중 06:12 (심판 말씀 듣고 너무 두려워 하고 어찌할 바 모르겠다고 하니 주신 말씀.)

< 하나님의 말씀 >

두렵느냐. 무섭고 떨리느냐. 그것이 정상이다. 내 심정 느끼고 내 마음 받은 네가 느끼는 그 마음이 정상이다. 참이야.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무서움도 공포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 나는 그들이 더 두렵구나. 나 여호와의 진노의 칼도 물과 불로 뒤덮는 심판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니 내가 어찌해야겠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극약처방으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

포를 통해서라도 내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길 원하는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기에 너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깨닫겠느냐. 깊은 한숨만 나오는구나. 나의 미간에 인상이 써지고 나의 심장은 내려앉는구나. 어떻게 할까. 나 천지의 주재인 여호와도 만왕의 왕인 여호와도 어찌해야 할 지 답답하구나. 답답하구나. 너무나 두렵고 무섭구나. 나의 진노의 손이 이 지구땅을 내려칠까봐 나도 두렵고 두렵다.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사랑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를 제발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고 너희의 첫사랑을 고백하라고 수 없이 얘기하거늘 너희는 예전과 변함이 없구나. 나의 숨이 가빠져 오는구나. 나의 숨이 가빠져 오는구나. 애가타서, 심정이 타서, 분노가 쌓여서, 한탄스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제발 어서 속히 내 심정 느끼고 깨달아 나와 함께 거하자. 나에게 거하는 자만이 이 심판을 면하리라. 이 심판을 면할 자 나의 팔에 거하는 자니라. 나에게 거하라. 나는 너희를 나의 품에 거하길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니라.

< 심 판 >- 시도 주심. 새벽 06:27

너희 온 인류의 죄
지구땅에 넘쳐흐르는구나

나의 사랑
이 지구땅을 휩쓸겠구나

온 산과 땅들이
바다가 되어 어느 곳에도 너희는 없구나

나는 온 지구땅을 둘러 본다
나의 마음에 합당한 곳 있는지 둘러 본다

나의 눈과 마주치는 자
나의 눈물 닦아줄 자 있나 찾아 본다

나의 심정 위로하는 자 그 누구라
심판으로 지구땅을 덮어야 하느냐

나는 싫다
나의 지구땅 사랑으로 덮고 싶구나

나의 사랑은 이미 짓밟혀
데굴데굴 개똥처럼 굴러 다니는구나

나의 진노를 어찌 하려 하느냐
나의 사랑 받아 주려므나

내 안에 거하는 자
내 사랑에 거하는 자

그 날을 면케 하리라
너도 나도 우리도 기쁜 날만 함께하길 소망 한다

